



1990년 12월 15일 창간 안내 041-635-2035

충남도정

더 행복한 충남 - 도민을 위한 도정을 잇다

제921호
2021년 10월 15일 ~ 10월 24일



내 집 마련 징검다리 '충남 꿈비채'로 모십니다

충남형 선도모델 충남 꿈비채

아산 배방 월천지구 첫 사업
청약 10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입주 대상 (예비)신혼부부, 청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저렴한 주거비, 더 좋은 임대혜택
도보 통학권 등 생활인프라

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무료
기본 임대기간 6년, 최대 10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에 입주해 두 자녀를 낳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후 내집 마련 걱정에 자녀 계획을 미루고 있었는데, 바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획기적이면서도 통큰 정책 같습니다. 꼭 청약 당첨이 돼 입주 후 아이까지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가 중점 추진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 첫 사업이 지난 11일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에 들어갔다.

충남 꿈비채는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주택정책이다.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 공급규모

- ▶ 총세대수 600세대
- ▶ 공급유형
36㎡형(15평) 60세대
44㎡형(20평) 180세대
59㎡형(25평) 360세대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 입주자 선정절차

- 인터넷 청약 접수
10월 11일 오전 10시~10월 25일 17시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11월 1일 17시 이후
- 당첨자 발표 : 2022년 2월 7일
- 계약 체결 : 2022년 2월 15일~2월 18일
- 입주 : 2022년 7월
- 문의 : ☎ 041-531-4861

주거비 부담은 더 낮추고, 주거공간은 더 넓히고, 육아 맞춤형으로 안전하게 설계됐다.

특히 입주 후 첫 아이가 태어나면 임대료 50% 지원, 2명을 낳으면 임대료 전액 100% 지원한다.

입주 후 자녀 출생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보니타 자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중국, 일본 등 해외 언론에서도 충남 꿈비채를 비중있게 보도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현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조성 중인 충남 꿈비채 첫 사업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중이며, 청약 기간은 10월 25일까지다. 내년 2월 7일 이

후 당첨자 발표, 같은 해 7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예비)신혼부부 등으로, 총 세대수는 모두 600세대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36㎡형(15평) 이 3000만 원에 9만 원, 44㎡형(20평) 이 4000만 원에 11만 원, 59㎡형(25평)

이 5000만 원에 15만 원이다.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신축 아파트(59㎡ 기준)에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5만 원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층간 소음 예방 및 아이 안전을 챙겼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 작은도서관, 쿠킹클래스, 신혼부부지원센터 등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김영희(아산) 씨

는 “둘을 앞둔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어서 아이 방과 거실을 눈여겨 보는데, 공간이 꽤 넓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점이 마음에 든다”며 “더구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다니 이번 청약에 꼭 당첨됐으면 고대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청약 관련 문의는 충남 꿈비채 아산배방 홍보관(☎ 041-531-4861) 또는 충남 꿈비채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3면〉

/김정원 jwkim87@korea.kr

義犬 '백구' 이어 光클 '꿈비채'도 해외 유명 방송 됐다

■ 뉴스 맥락 읽기

중국CCTV, 일본 TBS 방영



충남도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꿈비채’가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충남 꿈비채는 지난 달 20일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 등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면서 조회수 2억 5000만회라는 ‘광클’(빛의 속도로 클릭)을 기록했다. 9월 9일에는 일본 대표 민영방송 TBS가 충남 꿈비채를 비중 있게 다뤄 주목받았다. 충남의 집중 조명은 같은 달 미국 CNN에 보도된 반려견 백구 직후다. CNN은 흥성에서 40시간 치매 할머니 곁을 지킨 반려견 백구를 조명했다.

예비 신혼부부의 선망 ‘꿈비채’

충남 꿈비채는 꿈과 빛과 집(채)의 합성어다. 이 주택에 입주 후에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절반을,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 무료다. 거주 기간은 출산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혼부부들의 생활 기반을 닦을 동안 집 걱정을 덜 수 있다. 지난해

패러다임 바꾼 맞춤형 주택

1인 가구 시대의 변화 속에 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역적 특색과 사회적 특성 등이 결합되면서 청년부터 홀몸 어르신, 의료 약자, 신혼부부 등 다채롭다.

이 가운데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꿈비채는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문제 극복에서 출발했다. 키워드는 세 가지다. 결혼과 출생, 그리고 안정이다.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3포세대의 원인을 제공한 주거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中日서 ‘꿈비채’ 인기 왜?

꿈비채가 중국에서 관심을 모은 이유는 도시로 몰려든 농민공들의 애달픈 주거 생활과 높은 집값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댓글을 통해 ‘부럽다’, ‘중국에서 도입한다면 아이 둘 낳기 정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둘을 낳고 싶어도 집이 없어 힘들다는 푸념이다. 인구감소로 산아제한이 완화된 중국의 고민을 충남 꿈비채에서 찾았던 것이다. 저출산 인구정책에 처한 일본도 같은 심정에서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

무주택 설움 잊게 한 ‘꿈비채’

아산에 공급하는 꿈비채 600가구 청약 신청 범위를 보면 포용적 주택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간다. 예비 신혼부부 뿐만이 아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도 포함된다. 저출산 극복과 주거 안정의 ‘기본주택’ 개념이라는 평가다. 10년까지 주거할 수 있으니 무주택 설움도 보듬는다.

이찬선 도정신문팀장
chansun21@korea.kr

도 상징물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식

소나무, 참매, 국화 부문별 선정 도민의 날 맞아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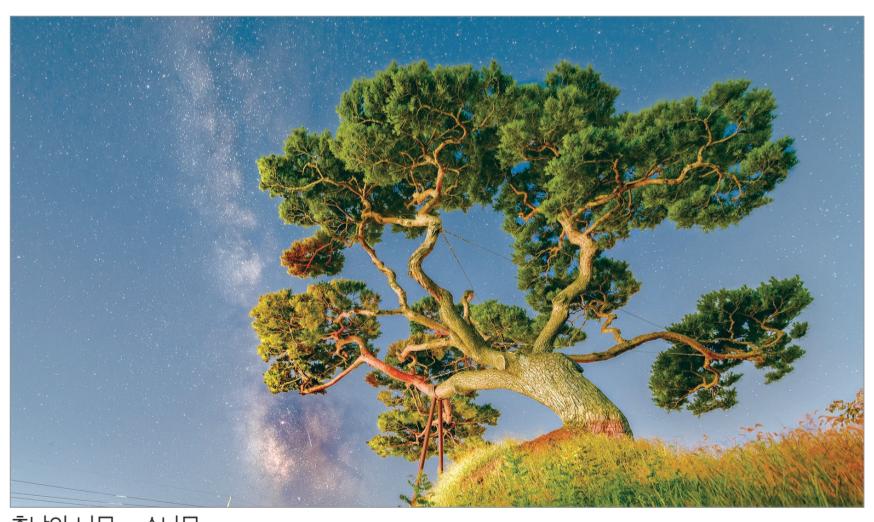
충남도는 10월 5일 새롭게 선정된 도 상징물인 소나무·참매·국화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진행한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6회 도민의 날 맞아 이날 도청

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최우수상은 소나무 부문 박성민(경기도 화성시) 씨, 참매 부문 김령근(부산 사하구) 씨, 국화 부문 김영순(전북 군산시)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 부문별 우수상 각 1명, 장려상 각 2명, 입선 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운영지원과 041-635-3506



충남의 나무 - 소나무



충남의 새 - 참매



충남의 꽃 - 국화

충남-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시스템 본격 추진

국토부 알뜰교통카드 연계해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수준으로
대중교통비 절반 혜택 전망

내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이 충남도와 수도권 간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받게 됨에 따라 충남형 교통복지 구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일 양승조 지사와 백승근 대광위 위원장, 박선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상황실에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별도의 카드

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기존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충남도-수도권 간 대중교통 환승 시 할인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 거리 만큼 마일리지를 받아 대중교통비용의 30%까지 후불방식으로 할인받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혜택에 더해, 지하철·버스의 기본요금 수준인 1250~15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선 정산되는 요금 할인제를 탈피한 후불형 요금할인 방식으로, 기존 방식보다 시스템 구축비가 20억 원 이상 절감된다. 또 운송업체의 경영개선

을 도모하며 기관 간 분쟁 방지 등의 장점도 있다.

앞서 도는 운행 이후 타 시·도 간 조율, 재정적 문제 등으로 수도권 전철 또는 타 시·도 버스 간 환승이 되지 않아 대중교통비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교통요금 절감 및 충남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권 대중교통 환승 등에 후불형 요금할인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는 대광위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 중인 천안·아산시를 비롯해 당진·논산·계룡시, 금산·서천군과 협의를 통해 이들 시·군에 내년부터 단계별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기



지난 7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협약식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했다.

양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수단 간 편리한 이용을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정책과 041-635-4564

도정만평

설인호



충남 주민자치 사진 공모전 개최

12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

충남도는 ‘코로나 위기, 함께 극복하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동’을 주제로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도내 주민자치 활동이며, 12월 3일까지 전국민(외국인 포함) 누구나 충남 공모

전 사이트(<http://www.chungnam.go.kr/contestMain.do>)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공모 주제 관련성 ▲주제의 표현력, 메시지 전달력, 감상자의 공감성 ▲홍보용 활용 가능성 등이다.

상징물별로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상금은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이다.

시상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우수 작품은 랜선 전시회 및 주민자치 행사 시 전시를 통해 도민을 찾아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선도적인 도의 주민자치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동체정책과 041-635-2274

공공기관별 주요 업무 공유·점검

도, 3분기 공공기관장 간담회

충남도는 10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3분기 2차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관별 주요 공유 업무 및 논의 내

용을 보면 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진흥원, 교통연수원 4개 교육기관은 우선 주민 참여와 각급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충남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2개 연 구기관은 정책개발과 지속가능한 충남

의 미래전략 수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경제산업 기관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지원 및 미래를 이끌 R&D(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예산담당관 041-635-3150

이번 합동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도,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육상에서 동시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 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

구 초과 부설 ▲혼획률 위반 ▲미승인 2종 이상 자망 사용 등이다.

또 꽃게 등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포획을 금지한 체장 미달 수산자원을 포획·유통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수산자원과 041-635-4134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한다.

10월 불법 어업 합동 단속

무허가 어업 등 계도·행정조치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한다.

아파트 범죄 안전망 구축한다

충남자치경찰위-충남개발공사

공동주택 범죄 환경개선 협약

대한 사전 범죄예방 진단 및 환경개선안도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개발공사는 공동주택 설계부터 폐쇄회로TV(CCTV) 및 방범창 설치, 가스배관 정비 등 범죄피해 방지율을 위한 디자인을 도입해 외부에서 주택으로 침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성·노인 등 1인 가구에 대해 세이프 품 세트(휴대용비상벨·창문 안전잠금장치와 경보기)를 각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으로부터 선정 받아 연말까지 100가구를 지원,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자치경찰협력과 041-635-5895

우아한 디자인 기품 느껴져

무령왕릉 출토유물 살펴보기

⑨금목걸이(왕비)

2점 겹쳐진 상태로 출토

9개(7개) 마디 연결 방식



금제 목걸이는 왕비 머리부근의 관구미개 옆에서 출토되었다. 모두 2점이 출토되었는데, 발견 당시 서로 겹쳐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

목걸이는 두께 약 0.3~0.5cm에 중간이 굽고 양 끝이 가는 금봉(金棒)을 서로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하나는 마디가 9개로 연결된 9절이고, 다른 하나는 7절이다.

7절 목걸이는 길이 5.4~6.9cm의 금봉 7개 마디를 연결한 것으로 단면 형태는 팔각형이다. 제작은 금봉의 양 끝을 길게 늘여 둑근 고리를 만든 후 다시 금봉 몸체에 6~10바퀴 정도를 감아 마무리하였다. 7개의 마디가 서로

고리와 고리로 연결되다가 마지막은 둑글고 작은 금고리 1개를 추가로 연결하여 목걸이를 완성하였다. 마지막의 작은 둑근고리는 목걸이를 착용할 때 사용한 연결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분 분석 결과 금(Au) 함유량은 98.4~99.0%로 확인되어 7절과 같이 금 순도가 순금(24K)에 가깝게 나타났다. 무게는 94.5g로 7절보다 무겁다.

이 두 금목걸이는 서로 겹쳐진

상태로 출토되고, 발견 위치도 왕비의 머리쪽인 관구미개 옆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왕비가 생전에 착용했던 것을 무령왕릉에 안장될 때 함께 껴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공주박물관

세계가 주목한 충남 꿈비채, 신혼부부 청약이 시작됐다

충남형 선도모델 충남 꿈비채

아산 첫 사업 25일까지 청약 접수
 600세대 모집…(예비)신혼부부 대상
 내년 2월 발표, 내년 7월 입주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임대료 무료

충남도, 청약 첫날 홍보 캠페인 중·일 유명 TV 매체서 집중 부각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 꿈비채)' 첫 사업 대상 아파트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에 돌입했다.

충남 꿈비채 첫 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서 추진 중이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전용면적 36㎡형(옛 15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아파트 각 세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충남 꿈비채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내부 공간을 살피고 있다.

출산 계획형,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계획·양육형, 다자녀계획·양육형 등 가족 성장 단계에 따른 7가지 타입으로 설계했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창의센터, 쿠킹클래스, 맘스테이션, 다목적 스포츠룸, 피트니스룸, 헬

스케어, 실내골프장, 신혼부부지원센터, 주민카페 등 시설이 들어선다.

입주 대상은 9월 27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또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를 둔 무주택 한부모 가족과 ▲주거급



거실, 부엌 모습.



방과 욕실 모습.

여벌에 따른 수급권자나 수급자 등도 대상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평형 공급

대상별 공급 유형은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정은 44㎡형과 59㎡형 A·B·C·D·E 타입, 주거급여 수급자는 36㎡형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36㎡형이

3000만 원에 9만 원, 44㎡형이 4000만 원에 11만 원, 59㎡형이 5000만 원에 15만 원이다.

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과 동일하며, 월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입주민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특히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절반을,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지원한다.

청약 마감 10월 25일

청약 기간은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내년 2월 7일 이후 당첨자 발표, 같은 해 2월 15~18일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꿈비채를 검색, 사이트 (<http://아산배방꿈비채.com>)에 들어가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충남 꿈비채는 지난달 20일 중국 국영방송사인 CCTV가 국제채널과 경제정보연합방송을 통해 보도하고, 웨이보 메인 기사로 배치하며 조회수 2억 5000만 회를 기록한 바 있다.

앞선 9월 9일에는 일본 대표 민영방송 중 하나인 TBS가 충남 꿈비채를 비중 있게 다뤄 주목받기도 했다.

/건축도시과 041-635-4647

'충남의 노래' 전국 경연 펼쳐졌다

충남의 노래 선정 1주년 기념 경연

충남도는 '충남의 노래 전국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로 '공존(共存)' 팀을 선정했다.

충남의 노래 선정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대회는 도의 대표 노래인 '충남의 노래'를 전국에 알리고, 누구나 쉽게 듣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작품성, 대중성, 활용성 등을 종합평가 했다.

대상을 받은 공존 팀은 충남의 노래 오케스트라 버전을 활용, 성악과 국악이 조화되는 화음 편곡으로 적합성과 활용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상은 성악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세련된 혼성 중창을 선보인 '양상불 슈

예뜨', 은상은 밝고 강렬한 락 사운드를 보여준 '밴드 발광(發光)'이 선정됐다. 동상은 원곡을 어쿠스틱 사운드로 표현한 '동명이인', 국악보컬과 현대음악을 조화시킨 '민요자매와 고라니 밴드'가 차지했으며, '끝까지 간다', '김주영 팀', '단테', '포레스트', 'CoffeeWrite' 5개 팀이 장려상을 받았다.

도는 대회에 참여한 팀들의 노래를 도 누리집에 공유해 충남의 노래를 흥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백성을 먼저 살피는 마음씨

장항선 연가 - 오가역

오지그릇 몇 벌 엎드려 있는 장독대 살던 이 모두 떠난 산모루이 외딴집

향아리, 독, 바탱이, 두명, 동이, 단지 대나무 살강에 살가운 몇 벌 투가리 오짓물 뒤어쓴 가무스름한 얼굴이여. (투가리-오가역)

투가리는 토속적이면서 서민의 감성이 오롯이 담긴 뚝배기의 충청도 사투리다. 폐역인 오가역 인근에는 4대에 걸친 옹기 명장의 전통예산옹기가 있다.

붉은 진흙을 별에 말려 구워낸 오지그릇은 살림 밑천이었다. 장독대에 향아리, 독, 바탱이, 단지들이 식구들 먹거리를 위한 장맛으로 담겼다. 부엌에는 두명, 동이, 소줏고리, 뚝배기들이 부엌광이나 살강에 염려 허드렛일을 해냈다.

시골길을 가다 장독대에 섬처럼 오지그릇 몇 벌 엎어져 있는 빈집을 더러 본다. 부모님들이 애지중지하던 장독대야말로 처분하기에는 가



슴 뭉클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자에 나오는 대기만성(大器晚成)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담고 있는 말이다. 공자의 군자불기(君子不器)는 군자가 특정 용도의 그릇으로 전락하여 수단과 목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다스림의 그릇이 되기로 맘먹었으면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봉사하는 뜻을 세움이 먼저다. 오지그릇처럼 안과 밖이 통하여 감출 게 없으면서 대자연과도 소통하는 큰 그릇이 구워지기를 갈망하는 선거철이다.

/글 충청남도문화인협회 이심훈
 /그림 여행스케치회 흥기옥

대한민국 3대 위기 극복 다짐

제26회 충남도민의 날 기념식

충남도는 10월 5일 도 문예회관에서 '함께 맞잡은 손' 이란 주제로 제26회 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는 1996년 '개도 100주년 기념식'에서 도민의 날을 제정·선포했으며, 1997년 이후 23년 만인 지난해부터 도민의 날을 단독 기념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한 충남의 위상을 확인하고,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함께 충남'이라는 특별

한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

행사는 한산모시 미디어 퍼포먼스, 국무총리·국회의장 축하영상 시청, 올림픽 메달리스트 도민현장 낭독, 모범도민 시상, 충남비전 영상 시청, '동행' 수어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양극화 등 대한민국 3대 위기와 기후위기 등에 앞장서 대응할 것"이라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502

"차별없고 따뜻한 세상 만들자"

제42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충남도는 지난 13일 충남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42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한창석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장, 시·군지회장 및 수상자 등 49명

이 참석했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우재연 아산시지회 부지회장, 김연월 서천군지회 회원, 이현우 금산군지회 감사 등 3명이 도지사상을 받았다.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요구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

도민의 날 향우회 간담회 열고

고향사랑 기부제 등 논의

충남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제26회 도민의 날 향우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정기연 충청향우회 중앙회 총재, 이재욱 (사)재인천충남도민회 회장, 명인식 충남도민회 중앙회 수석부회장

외 항우회 임원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올해 향우회 관련 사업 및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도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향우회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5

수소경제·탄소 중립 충남의 비전 선봬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서
충남형 정의로운 전환기금 알려
틸석탄 선도적 대처 역량 소개

충남도는 1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해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을 대내외에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은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고 기관·기업이 참여해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과 관련된 기술·제품·정보를 공유하는 전시회다.

도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령시, 태안군, 충남에너지센터와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충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정의로운 전환 기금 ▲블루수소



에너지대전에 참가한 충남 보령시·태안군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생산 플랜트 구축(보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태안) 등의 정책을 중점 홍보한다.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기득한 충남'을 비전으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이상, 석탄화력 20% 이하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충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수소경제·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충청남

도'를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 ▲수소산업 확장 동력 확보 ▲지역자원 활용 수소 신산업 확산 ▲사업 추진 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틸석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기금으로, 도와 보령·당진·태안·서천 등 4개 시군, 발전 3사(동서·서부·중부발전)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홍보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플랫폼, 액화수소드론, 풍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지,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을 전시한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에스알에너지, 태원디엔씨, 이지엑스, 선광테크 등 도내 소재한 11개 기업도 참여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의 제품을 소개한다.

/에너지과 041-635-3456

안 입는 옷·페플라스틱 다시 활용하세요

도, '충격어택' 활동 재개

충남도는 방문형 업사이클링 클래스 '충격어택' 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충남 전역에서 활동하며 호평을 받은 친환경 체험 워크숍 '찾아가는 충격공작소'를 보완·개선해 '충격어택'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진행됐던 폐플라스틱 활용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의류 업사이클링과 해양쓰레기 활용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이번에도 업사이클링(새활용) 제작 활동에 필요한 분쇄기, 사출기, 열 평판 프레스, CNC 자수기를 텁재한 트럭인 '충격공작소' 3대가 충남 곳곳으로 출동한다.

도내 20명 이상의 공동체라면 누구



'방문형 업사이클링 클래스' 신청자들이 폐자원 재활용 설명을 듣고 있다.

나 '충격공작소'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충남사회혁신센터 누

리집(<https://cnic.kr>)에서 할 수 있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7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챙기세요

3분기분 11월 5일까지 신청

충남도는 다음달 5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3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단체,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이전 분기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으며, 천안은 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받는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기업과 041-635-2224

예당호 출렁다리 케이블 점검

충남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이우성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지난 13일 '2021년 충남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예산군 예당호를 찾아 출렁다리 합동점검에 참여했다.

합동 점검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케이블 ▲행어 ▲바닥 프레임 ▲바닥 데크 ▲난간 ▲앵커리지 ▲시시티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브이(CCTV) ▲피뢰침 ▲인명구조 장비 ▲풍향·풍속계 ▲조명·전기 ▲코로나19 방역 등 12개 항목을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육안 점검이 어려운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드론으로 점검을 진행해 한계

를 보완하고 점검했다.

이우성 부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점검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도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높이 64m, 거리 402m에 달하는 예당호 출렁다리는 2019년 개장해 지금 까지 495만 8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예산군 대표 관광지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시설이다.

/사회재난과 041-635-3283

혁신하려면 시간 장소에 집중하라

충청의 기업가 정신

적은 돈으로 홍보 성공하려면
제품이 필요한 시간·장소 활용

스타트업에게 광고와 홍보는 어려운 과제이다. 스타트업은 보유 자금이 적은 반면, 광고 비용은 수십억 원에서 수 천억 원까지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내 제품을 알리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다.

에어비앤비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알리는 데 성공하였다

데, 비결은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일반인의 방을, 여행객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게 매칭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창업자인 체스키는 2007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컨퍼런스에 참여하러 갔다가, 본인들의 남는 소파를 온라인에 소개하여 숙박과 아침을 제공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이용자와 숙소 제공자를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체스키는 2009년 오바마 대통

령의 취임식을 적극 활용하였다. 당시 워싱턴에는 수십 만의 여행객이 몰려들었고, 숙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때 체스키는 시리얼을 이용한 우스꽝스러운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매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비스를 알렸다. 이를 통해 에어비앤비는 많은 숙소 제공자와 이용자를 모을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등록된 숙소 수가 100만 곳 이상이고, 시가총액은 약 34조 원이다.

많은 기술기업이 혁신적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내 제품이 우수함에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알릴지 망막한 CEO가 있다면, 우리 제품이 간절하게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종원
호서대학교 교수

지역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행될 예정이다.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군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개인역량 증진을 위해 도시재생 역량강화 기본과정 '코디네이터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코디네이터(활동가)를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9일 까지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

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도시재생의 이해, 홍보물 만들기, 동영상 제작, 갈등관리, 사회적 경제, 주민공모사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론과 실무를 병행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충청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실무를 강의한다.

장숙 센터장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041-633-8961

충남 수산식품 수출시장 전략은?

수출기업 역량 강화 세미나

충남도가 급성장하고 있는 수산식품 산업의 수출 확대를 이어가기 위해 도내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9월 30일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수산식품 수출기업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고, 해양수산부 관

계자와 수출 분야 마케팅 전문가 등을 초청해 정책 설명회 및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양수산부 수출 확대 정책 설명 ▲포스트 코로나 수출시장 진출전략 ▲FTA 활용을 통한 수산식품 수출 절차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어촌산업과 041-635-4844

창업 아이템 찾고 활성화 도모

제1회 충남 여성 창업경진대회

충남도일자리진흥원 내 충남광역새일센터는 지난 6일 도내 여성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대상 '제1회 충남 여성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상은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박수현 학생(디지털 플랫폼 봉사 서비스)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Mami doll 대표 윤지영

(변려동물 주모 커스텀), 장려상은 삽다리더덕 김예슬(더덕밀크), 예비 창업자 김주현(치료 매칭 및 치료 스트리밍 서비스), 헤어베이스 대표 백경의(뿌리볼룸스타일러)가 각각 수상했다.

(제)충남도일자리진흥원 이시우 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5팀 모두 창업까지 이루어져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일자리진흥원 041-330-4952

10월의 내포,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에 서다

15~17일 내포신도시 일원서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한국 문화 사진전, 인문학 강연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2021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도는 15~17일 내포신도시 흥예공원

일원에서 올해 50주년을 맞는 문화의 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포 한(韓) 문화'를 주제로 여는 이번 행사는 충남 고유의 문화와 내포 지역의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지역 예술인의 훈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먼저 사전 행사를 진행하는 15일에는 ▲문화전령 지식텔러 인문학 콘서트 ▲내포와 땅의 유품 '전통 풍물 공연'

연' 등을 추진한다.

16일에는 50주년 기념 개막 주제공연을 비롯해 발달장애 청소년 합창단 아산 볼레드합창단의 '행복 한(韓) 문화 합창', 한산 모시 패션쇼, 내포 유스 페스타(전국 중학생 케이팝 경연대회) 본선, 국악 공연 등을 펼친다.

17일에는 내포 유스 페스타 결선과 창작가요제 '신(新) 가객대첩'을 추진하고, 민요자매·레인보우합창단의 '홀로아리랑' 등 폐막 공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충남 청년 예술인 아트 페스타 ▲'충남역사를 말하다' 사진전 ▲한(韓) 문화 문학의 길 ▲충청남도 상상미술관 참여 미술제 ▲자미원 가을소풍(고전문화 해설, 버스킹 등)도 마련한다.

각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단계별 제한 인원을 두고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개막식은 도와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인문학 콘서트, 내포 유스 페스타, 신 가객대첩 등 일부 프로그램은 녹화본을 추후 게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1972년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 왔으며, 2003년부터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과 결합해 지자체별 순회 개최하고 있다.

/문화정책과 041-635-3812



섬마을 화재시 헬기로 신속 출동·진압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이 어려운 섬마을 등에서 일어난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헬기 119진화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헬기 119진화대는 공중에서 소방대원과 장비를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돼 별도 헬기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진압 활동이 가능하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5일 홍성군 서부면 홍성방조제 일원에서 시범훈련을 갖고 본격적인 헬기진화대 운영에 돌입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89

분권형 개헌·지역대표상원제 도입 한 목소리

4개 시도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7일 충북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주제로 '제3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준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각 시·도 민관정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

민관정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반드시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은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반전시켜, 지역격차와 양극화 등을 해소해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유

일한 대안"이라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공론화하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비례의원을 포함하면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비수도권 의원 수보다 많은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지역대표형 상원제"라며 "이번 포럼이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조정실 041-635-3113

충남 내포신도시 '내포씽' 달린다

도, 공공자전거 이름 선정 내년 하반기 335대 보급

내년 하반기 충남 내포신도시 내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운영될 예정인 공공자전거 명칭 공모에서 '내포씽'이 최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도는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자전거 명칭 공모를 통해 최우수작인 '내포씽'을 비롯해 우수작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선정 결과를 도 누리집에 공지

하고 최우수작 수상자에게는 30만 원, 우수작 수상자 5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내포신도시는 스마트도시 및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실천서비스 항목으로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충남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335대의 생활교통수단 자전거를 보급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정책과 041-635-4598

충청도청 태권도팀 전국대회 종합 우승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합동팀

충청도청 태권도팀이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겨루기 부문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

도는 도청 태권도팀이 지난 3~4일 전북 익산시에서 열린 제11회 전국마음 장애인태권도대회 겸 2022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이진영(-67kg) 선수와 이다솜(+67kg) 선수 2명이 겨루기 부문에 각각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체육진흥과 041-635-3858

충남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도, 유해물질 감시체계 확립

충남도가 올해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센터장 이광규)는 지난 5일 센터에서 '도민참여 수산물 안전성조사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수산물안전성센터는 이날 (사)여성

중앙회서산시지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서산시지회 회장을 초청해 꽃게와 갈치 등 10월 제철 수산물의 시료 수거부터 방사능 분석까지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다.

올해 도내 생산·위판 수산물 42품종 249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방사능이나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72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 확충

자치분권시대 더 좋은 삶③

자치단체 재정 지속 확대하고 스스로 구상한 사업 추진해야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곳은 2021년 기준으로 63개에 이른다. 충남에서도 15개 시군 중 3곳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기본적 행정수행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4곳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예산비중은 평균적으로 36% 수준으로 시군 자체단체로 한정할 경우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치재정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 필요한 자체사업 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자치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세수기반 차이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악화되는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확대가 필히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후 30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은 지속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역주민의 선호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공공서비스를 원하는지

/최웅선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지난 7일 열린 '임산부의 날 힐링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맘 고민 날린 '임산부 토크콘서트'

임신·출산·육아 경험담 공유
산후우울증 극복 비결 소개에 공감
도, 하반기 공공산후조리원 전립

충남도가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0월 7일 도청 1층 로비에서 '제16회 임산부의 날 힐링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사연 소개, 출연진 간 토크 진행, 유튜브 댓글창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답변

과 퀴즈 이벤트,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사연 소개 시간에는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구축, 산후우울증 해결방안, 다자녀 가정의 효율적인 육아 방법 등 정책에서 실제 육아 해법까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 공유했다.

출연진들은 충남맘들의 고민에 적극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담은 물론 육아 상식 등을 알려주며 열띤 분위기를 이어 나갔다.

양 자사는 "최근에는 입주 후 아이를 2명 낳으면 임대료를 100% 면제해주는 두 자녀 무료 아파트인 '꿈비체'를 분양하며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

경을 선도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전국 최초 어린이 인성학습원인 자연놀이뜰과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될 예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정책에 담아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돋겠다"고 했다.

한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도는 2018년 7월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2773개소를 개설해 임산부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아동 수당인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고 12월에는 분만의료 취약지역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를 도입했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4



가을에 핀 벚꽃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고운식물원에 춘추벚꽃(시월벚꽃나무)이 개화해 즐거움을 주고 있다. 봄과 가을에 두 번 꽃을 피우는 '춘추벚꽃(시월벚꽃나무)'은 개화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3년 4월 문을 연 고운식물원은 37개 소정원으로 구성, 8800여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고운식물원 041-943-6245~6

공공개방자원 편하게 이용하세요

숙박시설, 강의실, 실험장비 등

충남도는 공공개방자원 통합플랫폼인 '공유누리'를 통해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8000여 건의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도와 15개 시·군은 공유누리에 공공시설 및 행정물품 등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자원을 유휴시간에 도민에게 개방·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숙박 및 문화시설 224개 ▲강의실 275개 ▲회의실 205개

▲체육시설 916개 ▲주차장 641면 ▲행정물품 1291개 ▲ 실험장비 4572개 ▲교육강좌 40개 등 총 8164건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공공개방자원을 발굴·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유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30

산불 예방 초동 진화 체계 가동

도, 산불 취약지 순찰 등 대응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가을철 산불에 나서는 등산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산불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산불대책본부

를 구성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개조 30명을 선발·운영키로 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불 취약 지역 순찰 및 예방 활동, 초동 진화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입산자 및 인근 주민 대상 홍보·안내 활동도 병행한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을 금해야 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439

충남도립대, 소통 통해 답 찾는다

12월까지 또래튜터링 운영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가 유대인 교육법으로 알려진 '하브루타'를 운영한다.

통해 재학생 학습능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충남도립대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오는 12월 17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브루타(또래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튜터(선배)와 튜티(후배)가 팀을 이뤄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학습하는 것이 핵심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층적으로 지식을 이해하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충남도립대 041-635-6619

트랙터에 소화기 달아주세요

농기계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

충남소방본부는 본격적인 추수철을 앞두고 농기계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화재는 총 70건이며, 이 중 25건(36%)이 추수가 한창인 9월부터 11월 사이 집중됐다.

화재 대부분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농지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화기 비치를 통한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오경진 소방본부 화재조사팀장은 "최근 출고되는 농기계는 소화기를 갖춘 경우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24

빠르미 이어 신품종 쌀 또 개발

극조생 벼 '충남26호, 27호'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햅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빠르미, 여르미에 이어 품질이 우수한 극조생 벼 '충남26호, 27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두 계통은 조기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이기작 이모작보다 단기작

재배시 미질이 우수하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지역적응시험을

보완해 2022년 품종출원 할 예정이다. 충남 26호는 '빠르미' 품종보다 출수 가 3일 늦고, 27호는 2일 정도 빠른다. 반면 수확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빠르미와 거의 비슷한 특징이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050

한국 해전사의 격전지, 서천 장암진

내포 포구 이야기

진성 설치 해양방언 '견고'

서천역사정체성 정립 절실

왕조는 이를 침략을 저지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백강전투, 기벌포전투, 진포대첩 등이 그 예이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는 금강 하구의 양안(서천과 군산)에 각각 서천포진과 군산진을 설치하고 외적을 방어하였다. 이때 장암진은 서천포진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515년 서천포에 진성을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살수대첩, 귀주대첩, 행주대첩 등의 전승을 거두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해전을 치르기도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전을 떠올리면 대부분 한산도대첩이나 명량대첩을 떠올린다. 성웅으로 추앙받는 이순신의 영향일 것이다. 그러나 한산도와 명령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해전 전승자가 있다.

바로 서천 장암진이다.

서천 장암진은 금강과 서해안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서해에서 전라도와 충청도로의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 서해를 따라 개경(혹은 서울)으로 올라가는 전라도의 세곡선과 금강을 따라 내려오는 충청도의 세곡선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이유로 일찍부터 군사요충지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외적은 수많은 군량곡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인 금강 하구를 차지하고자 했다. 한반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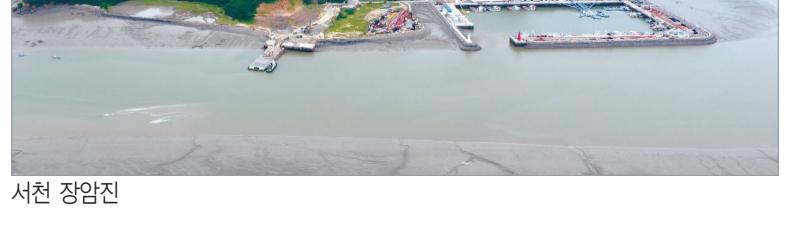
계획이다.

또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입산자 및 인근 주민 대상 홍보·안내 활동도 병행한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을 금해야 한다.

/문광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연구부 선임연구원



서천 장암진

충남지역 곳곳 외래생물 296종 서식 확인됐다

가시박·꽃매미·배스 등 발견

외래생물 분포 조사 결과

충남도 내에 서식하는 외래생물 중 재배식물 79종을 뺀 야생 외래생물은 296종이며, 생태계교란생물은 28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종별 및 지역별 외래생물 관리 방안을 마련, 퇴치 사업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도는 최근 '외래생물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외래생물은 식물 235종, 포유류 3종, 양서류 1종, 파충류 8종, 곤충 36종, 어류 8

종, 저서무척추동물 5종 등 296종이다.

시군별로는 태안 176종, 홍성 166종, 보령 163종, 공주 158종, 서산 156종, 천안과 아산이 각 151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타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됐으나 도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외래생물은 가는잎금방망이, 각시갈퀴나물, 공단풀, 긴털비름, 까락립새귀리, 냄새명아주, 넓은김의털, 노란꽃팡파리, 들갓, 들괭이밥, 미국물징개나물, 미국비름, 별나팔꽃, 부령소리쟁이, 서양톱풀, 선토끼풀, 시리아수수새, 자주비수리, 큰뚝새풀 등 식물 19종이다.

15개 시군 전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외래생물은 가시박, 가시상추, 가중나무, 주홍날개꽃매미, 해바라기방패벌



꽃매미 -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레, 배스, 원돌이물달팽이 등이다.

외래생물 중 도내 서식이 확인된 생태계교란생물은 28종으로, 환삼덩굴, 황소개구리 등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관리 전략으로 ▲유입 전



배스 - 북아메리카



가시박 - 북아메리카

또는 소규모 유입 시 초기 완전 방제

▲화산 진행 시 저지 및 규모 축소 ▲대규모 화산 시 피해 저감 및 생태·건강·시설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전역에서 외래생물 전

체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라며 "용역 결과를 활용, 각 시군과 협의를 통해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2717



충남도민인권선언 7주년 인권 의미와 가치 되새겨
문화행사에 담긴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도민 인권선언 제7주년을 맞아 충남도서관 등에서 10월 13~14일 인권 주간 문화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10월 13일 선포한 도민인권선언 /자치행정과 041-635-2332

충남도립대, 전국 도립대 수시 경쟁률 1위

수시2차 모집 11월 8~22일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가 전국 7개 도립대학교 가운데 수시 1차 신입생 경쟁률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시1차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립대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작업치료학과(8.4대 1)로 나타났다.

작업치료학과는 졸업 후 대학·종합 병원 또는 보건소 등 작업치료사로 취업이 가능해 수험생들로부터 인기다.

전기전자공학과와 건축인테리어학과(각각 4.4대 1), 컴퓨터공학과 등도 4 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수험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학과 중 하나다.

도립대는 12개 학과 모두 각양각색의 맞춤형 강의와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충남도립대는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수시 2차 모집을 한다.

/충남도립대 041-635-6699

2027 하계세계경기대회 유치 '한마음'

충청권, 전국체전서 퍼포먼스

충남도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7일 간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도 선수단 600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9세 이하 선수 및 지도자 1만 438명이 참가하며, 도에서는 선수 492명과 지도자 180명 등 총 672명이 39개 종목에 참가한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 선수단은 이번 개회식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

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도전' 메시지가 담긴 수건을 양손으로 펼쳐 들고 입장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충청권 공동유치를 염원했다.

4개 시도 체육회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앞으로 대회 유치를 위한 대내외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체육진흥과 041-635-386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성평등 언어 이렇게 사용하세요

성차별 단어	성평등 단어	제안 이유
그녀	그	여성을 대명사로 지칠 때, '그'로 사용
여직원	직원	"나는 여씨가 아닙니다" 직업 등 앞에 붙이는 '여'를 빼기

● 슬로건 :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출처 :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전국 119소방동요대회서 최우수상

충남대표 '랄랄라' 팀 초등부 우승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청 주관으로 열린 '제22회 전국 119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에서 충남 대표팀이 최우수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예선을 거쳐 선발된 38개 팀(초등부 19개, 유치부 19개)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충남 대표로 출전한 엄마와 세 자매로 구성된 '랄랄라 노래하는 우리집' 팀은 뛰어난 가창력과 완벽한 화음을 자랑하며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초등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치부 부문에서는 '꿈꾸는 하연이' 팀이 안정적인 노래 실력과 귀여운 율동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과 함께 은상을 수상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23

한지형 마늘 11월 중순 전 파종해야

한파 피해 예방, 수확량 확보

충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는 '한지형 마늘'의 수확량을 높이려면 늦어도 11월 중순 전에는 파종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마늘 짹이 어린 상태로 유통하기 때문에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적기 파종이 중요하다.

마늘에서 발생되는 잎마름병, 흑색

썩음균핵병, 선종, 응애 등을 씨마늘을 통해서도 감염되므로 건전한 씨마늘이라도 반드시 소독하는 것이 좋다.

이희진 도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연구사는 "한지형 마늘은 파종 적기를 잘 지키는 것이 안전한 유통과 안전 수확량 확보를 좌우한다"며

"파종 전 우량종구 선별 및 종구소독 등 파종 준비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442

가을 토마토 일교차 대응이 중요

18°C 이하에는 보온해야

충남도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는 가을철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교차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잎에 이슬 맷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잎곰팡이병, 점무늬병 등의 발생이 증가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우스내 온도

가 18°C 이하로 떨어지면 비닐이나 커튼을 닫아 보온을 실시하고, 야간 난방을 통해 온도를 15°C 이상 되도록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난방은 새벽 해뜨기 직전에 최대로 실시하고 오전 환기를 일찍 시작해 천천히 조금씩 환기창을 열어 온도 차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364

강소농 지역선도농가 성장 지원

합동컨설팅 통해 역량 강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2일 농가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소농 민간전문가 합동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컨설팅은 아산시 우수자율모임체를 대상으로 해당 농가 현

장에서 재배기술과 가공, 경영마케팅, 창업, 전자 상거래 등 분야별 강소농 민간전문가 8명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도 강소농지원단은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매년 채용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된 강소농의 경영개선을 위해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135

거미줄에 걸린 고독한 감정을 포착하다

극사실주의 국호정 작가

그림 위에 그물 그려 이색적 표현

“사실주의 그림에 상상력 더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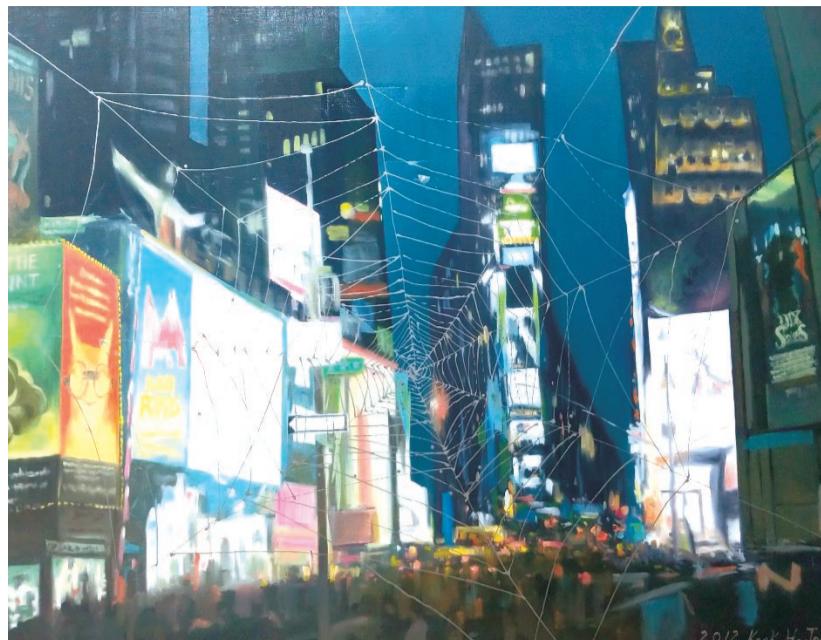
[당진] 국호정〈사진〉 서양화 작가의 극사실주의 작품에는 거미줄을 함께 그려내 비구상적인 양면성이 담겨있다.

국호정 작가는 “우연히 거미줄을 그려냈는데 느낌이 새로웠다. 특히 거미줄을 하나 그렸을 뿐인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낸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 작가에게 거미줄은 얹히고 설친 우리의 인생처럼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소재다. 거미줄을 덧입히는 작업을 할수록 거미줄이 주는 다양한 상상력과 감정 표현은 작가에게 매력적이었다고.

작품 ‘도시의 고독’은 저녁 밤거리의 시끌벅적한 도시 모습을 배경으로 거미줄을 덧입혔다.

이는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황량함과 허무함을 거미줄로 표현하며, 비구상적 이미지를 담아냈다.



국호정 작가가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느껴지는 황량함과 허무함을 그려낸 ‘도시의 고독’



김종미 작가의 명암 표현과 특유의 여백미가 드러나는 작품 ‘지난 여름날’

절제된 여백의 미를 담다

문인화 김종미 작가

먹의 명암 조절로 표현 깊이 더해

담백함이 느껴지는 화폭의 빈 공간



[당진] 문인화 김종미〈사진〉 작가는 먹의 농담 표현과 자연스러운 필선 그리고 여백의 아름다움을 한 폭에 담아내고 있다.

김 작가는 “문인화는 먹의 농담을 조절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여백의 미를 지니고 있어 대상을 세밀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나름의 멋을 느낄 수 있다”면서 “선조들이 그려냈던 전통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에는 현대적 감각을 덧입히는 작품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먹의 번짐이나 농담 등 고유의 특성을 살리되, 사물에 대한 적당한 묘사력을 통해 여백의 미를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객들은 자연스러운 필선으로 어우러져 절제돼 있으면서도 문인화의 담백하고 아름다운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통 서예의 근본에 충실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려내면서 문인화에 대한 현대적 해석도 염볼 수 있다.

김 작가는 “전통 문인화를 더 많이 배우고, 기본 구도에 충실히 농담과 선의 표현을 더욱 잘 해내고 싶다”며 “기초가 탄탄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나영/당진신문

10개국 참가 ‘공주국제미술제’ 11월까지 열린다

임립미술관서 두 달간 개최

중국 프랑스 등 50여 명 참가

[공주] 10개국에서 참가하는 공주국제미술제가 11월 30일까지 공주시 계룡면 임립미술관(관장 임립)에서 열린다.

‘색이야기, Color Story’를 주제로 열리는 미술제는 해마다 열리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제

미술제로, 중국, 일본, 호주, 몽골, 네팔, 태국, 프랑스, 그리스, 러시아 등 10개 나라 5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한국 회화 미술작가 16명과 외국 작가 24명, 그리고 13명의 젊은 애외 조각가들이다.

전시는 60일간 미술관 전역(특별전시관 A동, B동, 애외조각공원 등)에서 개최되며 주제전(회화전)과 애외조각전으로 구성됐다.

/공주시 제공



임립 교수의 ‘컬러 판타시아 블루-2021’ /임립미술관 제공

‘충청의 소리’ 중고제 마지막 계승자

예향 충남, 그 맥을 찾아서(26)

서산 판소리 심화영

충남무형문화재 승무 기능보유자

아흔 넘어서도 판소리 사설 정리

서도민요 등 후학들에 전수 외길



남포 등지에서 소리 선생을 한다. 서도민요를 배우고 장고 솜씨로도 인정을 받았다. 때로 권변에서 주최하는 공연에서 승무도 주고 이 도령 역할도 했다.

해방과 함께 고향 서산으로 돌아온 그는 33 살 때 농악대 상쇠를 하는 동갑내기 송운석과 결혼해 활동을 멈추게 되고, 5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활동을 재개했다. 알음알음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나고, 양유정에서 춤과 가야금을 가르쳤다.

뒤늦게 예술사를 뒤적이고 옛날 음반을 들추던 학자들에 의해 그의 행적이 발굴돼 2000년 1월, 충남무형문화재 27호 ‘승무’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그리면서 ‘심화영 승무보존회’가 결성돼 외손녀 이애리를 비롯한 후학들에게 그의 춤이 전수되고 있다.

90세가 훌쩍 넘는 세월에도 오빠에게 배운 판소리 사설을 정리하고, 서도민요, 승무를 후학들에게 전수하며 노년을 살다 2009년 11월 97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중고제 마지막 계승자’, 그의 소리는 음반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의 가슴에만 묻혀 드러나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존재를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하는 안타까움을 품는다. 조카 심수봉의 디너쇼에서 부른 ‘쪽대머리’는 그가 간직한 시간의 깊이만큼을 감한듯 군더더기를 제했고, 가벼워진 그의 육신만큼 단출했다고 전한다.

심화영 일가는 서산에서 율방을 운영했다. 그의 조부 심팔록이 연주자였으며, 아버지 심정순의 율방을 이어받은 오빠 재덕은 주변 율객들과 교유하며 활동했다. 전언에 의하면 통소��이, 괴리, 가야금, 양금衰이들이 모여 날마다 연습했고, 명창 김창룡도 가끔 들러 갔다고 한다. 이를 보아 당시 심씨 일가 율방은 충청지역 전통예술의 중심지였음이 틀림없다.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한글날 초대시

겨레의 생명, 한글

한글은 나라의 생명이다
네가 있으므로 조국을 지켜왔으며
우뚝 이 땅에 서고 있는 것이다

나라말은 겨레의 소리다
가락이 있으므로 기쁨을 나누고
찬란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람의 이치로 빛어낸 문자예술
너는 느낌이요 감동을 줌이니
움직이는 디자인이며 소통의 매아리인 것이다

한때의 질곡의 역사는 가라
밟히고 흔들릴 때마다
용기와 힘이 되어준 한글

시련 끝에 큰 길을 내듯이
그 문자 소리로 정의를 심었고
자유와 평화를 노래했다

겨레 가슴에 울리는 세종의 훈
국어가 있음이 나의 존재임을 나는 안다
너는 이 나라의 생명의 꽃이며 문화의 힘이다

오! 나의 사랑 한글이여
그 기운 나에게 있어
온 몸으로 춤을 추고 싶은 거다
둥 둉 둉 즐거이
온 세상 깨움을 향하여
복을 치고 싶은 거다
복을 치고 싶은 거다



심승섭 시인

·한글문자조형연구소 소장

충청인의 詩香

나이테

산다는 게 별거던가
나이테처럼
나이테처럼
그리움을 만드는 게지

생각 없이
말하고, 웃고, 떠들던
하찮은 일상들이
그저 그런 것들이

세월 주름진 후
포개진 기억들이

도렷이 남아 있는
나이테처럼
그때 그런 것들이
모두 그리움 되는 게지



김봉배 시인

·한국 공무원 문학협회 감사

충남도정

더 행복한 충남
도민을 위한 도정을 있다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안내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문화 전령사’ 내포에서 꽃피울 韓문화

내포칼럼



이창근
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
상임이사

올해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정부의 국적 행사가 열린다. 1972년 이래 50번째를 맞이한 ‘2021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다. 50돌 행사의 충남 개최 의미가 더 크다.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972년부터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지정,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하는 전국 규모 행사다.

문화의 달 행사는 2003년 지방 순회 개최를 시작한 이후,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결합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견인했다.

지난해 5월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이 전국 여러 지자체와 경쟁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치한 사업이다. 개최지 선정 심사평가에서 문화예술인들과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류의 원형인 ‘한민족 고유의 역사, 철학 문화의 재발견’을 토대로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안,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충남도청이 소재한 내포신도시 흥에 공원 일대에서 ‘내포, 한(韓)문화’를 주제로 10월 15~17 대면·비대면의 하이브리드로 개최한다. ‘우리는 은하수로 가는 문화 전령사’라는 슬로건 아래, 충남의 인문과 천문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 내포 지역의 역사와 한(韓)문화의 뿌리를 찾아간다.

추진위원장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충남에서 치르는 이번 행사에서 수많은 별이 모여 은하수가 되듯, 국민 각자가 한국문화의 힘과 격을 높이는 문화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에는 사전 행사로 인문학 콘서트 ‘문화전령 지식텔러’, 전통풍물공연

‘내포와 땅의 울림’을 진행한다. 16일 개막행사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 합창단 ‘아산 볼레드(VOLED)’가 ‘행복한(韓)문화 합창’ 공연을 선보이고, ‘한산 모시 패션쇼’, 50주년 기념 개막 주제공연 ‘신(新)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진행한다. 17일에는 내포 창작가요제 ‘신(新)가객대첩’을 비롯해 ‘민요 자매’와 다문화가정 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합창단’의 합동 공연 ‘홀로아리랑’ 등이 흥예공원 무대에 오른다.

흥예공원 행장과 충남도서관 일원에서는 부대행사로 충남지역 청년 신진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페스티와 한(韓)문화 문학의 길 전시, 충남도민들이 생각하는 미술관에 대한 기대를 담은 ‘상상미술관 참여미술제’ 등을 열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의 백미는 50주년 기념 개막 주제공연 ‘新 천상열차분야지도’다. 충남 서산 출신의 조선 초 천문학자 유방태이 제작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주제로 미디어아트와 융복합한 충남무형문화재 한산세모시짜기, 공작부채, 설위설경 공연을 펼친다.

국보로 지정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모티브로 3원(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28수(동방청룡 7수, 남방주작 7수, 서방백호 7수, 북방현무 7수) 별자리와 1476개의 별을 미디어아트로 충남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울감과 답답함이 크다. 문화예술의 순기는 위로와 치유다. ‘위드 코로나’가 멀지 않았다.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문화의 달 행사’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 지역문화의 50년을 돌아보며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

‘50돌’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15~17일 내포신도시 일원서 열려
대면·비대면 융합한 축제의 장

인문학 콘서트, 아리랑 합동 공연
신진예술인 전시, 참여미술제 제공
‘新’ 천상열차분야지도 공연 백미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앞두고 위로·치유의 대전환 전망

사람의 기분까지 좌우하는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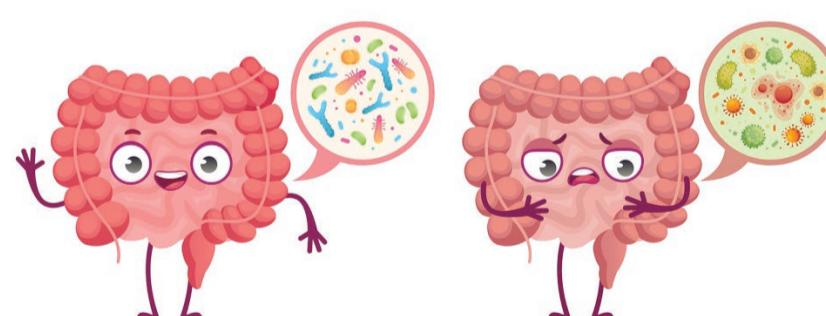
내 몸이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

‘졸병’ 말고 ‘대장’, 이름만 보면 저는 인체의 지휘자 맞지요?

가끔 저를 곱창, 막창, 순대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건 정말 저에 대한 모독입니다. 요리조리 살펴봐도 그냥 꾸불꾸불한 창자에 불과하고 안에는 뚝이나 차 있으니 무시하시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 의학자들이 활발하게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미생물-장-뇌축’입니다. 성인 한 사람의 장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미생물의 세포 수는 38조로 사람 전체 세포 수인 30조를 훨씬 넘습니다. 이 미생물을 포함된 유전자의 수만도 한 사람의 유전자의 150배에 달하니 엄청나지요? 이들 미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변비, 설사, 복통 등을 증상으로 하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장질환이 인체에 유해한 장내미생물 때문이라는 것은 진즉 알려진 사실인데요.



여기서 더해 요즘은 아토피, 천식, 건선 같은 알리지 질환, 더 나아가서 우울, 불안, 강박사고, 자폐 등 인간의 감정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 중 세로토닌은 뇌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장내 미생물에서도 엄청난 양이 생성된다고 하네요.

즉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이 뇌를 통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알미운 사람’과 물만 먹어도 살찌는 ‘억울한 사람’도 장내미생물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지만 다 모아 놓으면 200g이 넘는다고 하니, 장내미생물

/정유석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정록 시인의 서랍

나무거울

겉모양은 그럴듯하나
쓸모도 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나무거울이라고 하죠.
나무는 되비침도 얼비침도 없으니
까요.
하지만 나무는 나무를 보고 크죠.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잣나무가 기뻐
하죠.
목이 아플 때까지 나무를 우러르면
기슴앓이 냉가슴에도 샛별이 뜯다지요.
나무불상과 나무십자가도 멋진 나무
거울이지요.
빼걱대는 나무다리도 참 좋은 나무

거울이지요.
내 그림자 속 뼈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옹이는 나무의 상처지요,
옹이가 빠져나간 마룻장의 까만 눈동자가
처마 끝 푸른 하늘을 보아요.
그대는, 아름드리나무가 되라고
나무라는 사람을 갖고 있나요.
나무랄 데 없을 때까지 나무라는
나무거울을 모시고 있나요.

『동심언어사전』 문학동네

‘나무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거울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만, 마음을 비춰보기에는 썩 맞춤하다. 하늘도 얼굴을 비춰볼 수는 없지만, 자신을 성찰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거울이 아니던가. 세상 만물이 다 거울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별은 모두 반성(反星)이 된다. 방금 탄생한 어린 별들은 배냇저고리를 입고 젖을 먹는다. 은하수는 백일 잔칫상에 앉은 예쁜 반성들이다.

곧 팔순이 되는 어머니에게 색연필과 노트를 선물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을 귀동냥했기 때문이다. “엄니! 여기다 그림일기도 쓰시고 아버지한테 편지도 쓰세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절대로 지우개를 쓰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 생겨요. 말처럼 그림도 지울 수 없어요. 한방에 그려야



이정록 시인

오징어게임 속 당진이?

생생현장리포트



한수미
당진시대 최재차장

전 세계 90개국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당진이 출연했다. 오징어게임 3화가 시작하면서 참가자들이 섬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 속 ‘무진향’은 알고 보니 난지섬으로 향하는 당진의 도비도 선착장이었고, 참가자들을 따라 뒤쫓는 경찰이 지나친 곳은 대호방조제였다.

또 얼마 전에는 내년에 개봉할 영화 ‘젠틀맨’의 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촬영팀이 당진의 모 양복점을 찾았고,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 당진 곳곳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한글날인 지난 9일부터 이를 동안 시내 일부 도로를 통제하며 촬영이 이뤄졌다.

그 외에도 지난 8월에 종영한, 배우 송강과 한소희 주연의 드라마 ‘알고 있지만’에서는 삼교호 관광지의 향상공원이, 현빈과 손예진이 출연해 화제를 모은 ‘사랑의 불시착’ 마지막 장면에는 석문면 국가산업단지 도로가 등장했다.

단 한 장면인데도 내가 사는 이 지역이 방송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면

어찌나 반가운지.

누구는 볼 것 없는 당진이라고도 하지만 곳곳 예쁜 곳들이 많다. 시내에서 30분만 가면 바다가 있고, 넓은 바다를 앞에 둔 대형 카페들도 최근 많이 생겼다. 또 폐교를 활용해 미술관으로 만든 아미미술관은 몇 년 전부터 출사지로 유명세를 얻고 있고, 봄에는 유채꽃이 가을에는 핑크 블리 그拉斯가 만개하는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은 셀프 웨딩 스냅 촬영 장소로 많은 커플들이 찾고 있다. 이외에도 삼교호 관광지 내 향상공원과 면천이 골목골목은 옛된 모습으로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도 있다. 관광하기 불편한 교통수단이라던가 준비되지 않은 관광지 등이 그 예다. 어디서는 인터넷 검색 하나로 내가 탈 차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아는데, 당진에서는 정류장에 붙여진 시간표대로 버스만 오더라도 감사한 일이다. 또 배차 시간은 어찌나 긴지, 한 번 놓치면 한 시간 꼬박 기다려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최근 당진 행담도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또 옆 동네 서산에서는 갯벌이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에서 영화 ‘매드맥스’를 패러디해 ‘매드맥스’라고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당진과 서산, 태안 등 충남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환영해주고 기회로 삼아 알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만리포전망타워를 방문한 엄마와 딸. 가까운 곳에 살아서 자주 온다는 모녀는 오늘도 만리포를 조망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커는지 사진과 자료로 보여주는 전시

푸른 서해의 기적, 123만의 위대함 기록하다

충남기행 -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123만 자원봉사자와 어민들이
써 내려간 위기 극복 과정 간직
'다시 푸른' 바다가 주는 감동

하늘이 어찌 그리 그림 같은지 태안으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 하늘을 보다가 기분이 더 좋아졌다. 구름이 하늘 같고 하늘이 구름 같은 신기한 착시를 경험한 날, '태안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방문했다. 문득 14년 전 그해 겨울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7일이었다. 태안군 만리포 앞바다에서 국내 최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아름다운 바다와 해안가는 원유 1만 2000여㎘가 유출돼 순식간에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고 이 일대 어민들의 생계는 절망으로 뒤덮였다.

태안을 중심으로 넓게는 280㎢나 퍼진 기름띠. 검은 쓰나미가 덮친 막막한 바다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복구에 100년은 걸릴 거라고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10년 만에 태안 앞바다는 예전의

청정한 모습을 되찾았다. '서해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사고 직후 한국 국민은 물론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세계 20개국에서 온 1000여 명의 외국인 등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검은 기름이 밀려온 태안의 해변을 닦고 또 닦으며 바다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 덕분이다. 서해는 거짓말처럼 새로 태어났다. 위기에 힘을 모으는 국민과 의로운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아름다운 바다를 이생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승리의 기록을 모아 전시한 곳이 바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다. 안 왔으면 후회

할 뻔했다. 추운 겨울날 구토가 올라오는 기름냄새를 감수하고 해안의 돌과 바위를 닦고 또 닦은 자원봉사자들과 어민들의 위기 극복 지혜와 노력이 빛났던 순간들이 그대로 담겨있다. 기록이 증명하는 사진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충남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유류 피해극복과정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올리고자 추진 중이다.

특히 '만리포전망타워'에서 바다를 한눈에 조망하니 더 감개무량했다. 아파트 13층 높이의 전망대에서 보는 만리포해수욕장 일대 서해의 풍경 이란! 탁 트인 시야에 속이 다 씻기는 느낌이다.

오후 10시까지 개장하는데 7시부터 30분 간격

으로 9시 반까지 레이저쇼를 선사한다. 월요일만 빼고, 서해 여행지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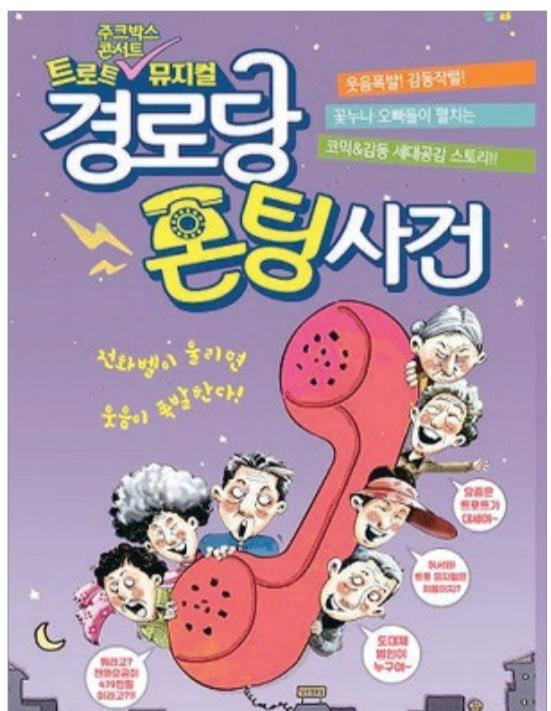
감사한 하루였다. 14년 전 혹한과 맞서 태안의 해변을 닦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아름다운 서해의 풍경을 지금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글·사진 노준희 여행작가



태안유류피해극복기념관 외부 전경

공연&전시 안내



트롯뮤지컬 '경로당 혼팅사건'

■일시 : 10월 28~29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
■예매 : 서산시문화회관 홈페이지
■기획 : 서산시·금산군·청양군
■[서산]TV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열연했던 중견배우 김영배 씨와 '순풍산부인과'에서 아역 배우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미달이 역의 김성은 씨 등이 캐스팅됐다. 20대 후반의 택배회사 직원이 혼팅 중독으로 요금이 많이 나오자 아파트의 경로당에 숨어들어 도둑 전화를 하면서 펼쳐지는 상황들을 재미있게 담아냈다. /서산시 제공

논산시, '내 이름 쓸 수 이따' 展

■일정 : 10월 5일~11월 5일
■장소 : 서울 KT&G 대치갤러리
■주최 : 논산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KT&G 상상마당
■충남 논산시는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KT&G 대치갤러리(서울 강남구)에서 도서 '내 이름 쓸 수 이따'에 담긴 어르신들의 시화 작품 전시회를 연다. 시와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KT&G 상상마당이 추진한 행사로, 유쾌하고 진솔하게 쓴 어르신들의 시와 그림을 통해 젊은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다.

'내 이름 쓸 수 이따'에 수록된 내용 중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한 시화 작품과 시낭송 오디오 클립, 인터뷰 영상 등을 함께 전시한다.

특히, 전쟁과 가난 등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의 눈물과 한을 진솔하게 풀어놓았다.



홍주문화회관 10월 기획공연

뮤지컬 '김종욱찾기'

■일시 : 2021. 10. 21(목) 오후 7시
■장소 :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
■출연 : 박강람, 조연화, 문준혁
■예매 : 홍주문화회관 홈페이지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홍성군
■관람 연령 : 8세 이상
■대한민국 대표 로맨틱 창작뮤지컬로 장유정 작가와 김혜성 작곡가의 작품이다. 2006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계속 공연되고 있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골고루 인정받은 베스트셀러 뮤지컬이다. 2010년 영화로도 제작돼 흥행에 성공했다. 인도 여행에서 우연히 만나 첫사랑에 빠진 김종욱을 찾는 이야기의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어설픈 사랑 그려내

이정록 시인의 동화 - '아들과 아버지'

"부자지간, 기발하고 재밌게 연결"

홍성 출신 이정록 시인이 부자(父子)지간의 어설프면서도 따뜻한 사랑을 그린 동화 '아들과 아버지'를 펴냈다.

지금은 흔한 컴퓨터와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옛 농촌 마을의 따뜻함을 담은 동화로, 세상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해픈 사랑'을 하기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전달된다. 어린 시절 장난기 넘치고 해맑은 에피소드들은 어린이 독자에게 즐거움을, 어른 독자에게는 유년 추억과 시간을 선사한다.

안도현 시인은 서평을 통해 "책을 펼치자마자 자꾸 웃음이 터져 나오려 한다. 막막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작가가 기별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이라며 "오늘을 살아가는 아버지인 나에게 적용하고 싶어진다. 작가가 이야기 사이사이에 배치한 동시와 편지는 이 책을 읽는 이에게 건네는 고소한 덤"이라고 말했다.

/도정신문팀

“놀이엔 차별이 없습니다”… 道 최초 통합놀이터 구현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함께하는 충남의 100가지 변화 ①

발달장애 아동과 비장애 형제를 위한 공간 만들기 의제실행팀

발달장애 아동의 형제가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곳

충남 최초 통합놀이터 실현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지난달 26일 통합놀이 공간 꿈터에서 발달장애·비장애 아동들과 보조교사들이 놀이시간을 갖고 있다.

‘뛰어도 괜찮아. 소리쳐도 괜찮아. 꿈터에서 마음껏 뛰고 놀자!’

지난 9월의 마지막 주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흥의스포츠타운 건물에 들어서자 특별한 놀이공간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널찍한 공간에 알록달록 시각을 자극하는 벌룬형 놀이기구부터 감각 발달을 돋는 다양한 촉각놀이 도구가 마련돼 있었다.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아

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마음껏 뛰어다녔다. 기쁜 마음에 큰 소리를 지르고, 때로 놀이기구를 격렬하게 흔들었지만, 이를 말리거나 눈총을 보내는 이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증 등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꿈터는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형제자매를 위한 공간 만들기’ 의제를 통해 조성됐다. 10월 말까

지 운영되는 충남 유일의 이 통합놀이터는 발달장애를 가진 신재민(10) 군과 비장애인 여동생 신재봄(6) 양, 두 남매를 키우는 이주영(38) 씨와 그의 언니 이민경(40) 씨 손에서 탄생했다.

동생 주영 씨는 남매를 양육하며 ‘마음 편한’ 놀이공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흙 던지기 등 감각적인 놀이에 집중하는 재민이의 행동은 문제행동으로 여겨지곤 했고, 다른 아동

과 부모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주영 씨가 재민이에게 걱정 어린 시선을 둔 사이 동생 새봄이는 소외된 채 혼자 놀아야만 했다.

주영 씨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재민이와 내가 상처받는 느낌에 놀이터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부모와 아동들에게 잠시라도

/주재현 scottju@korea.kr

김재일 단국대병원장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

코로나 지역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 위해 앞장서



26회 충청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확산방지, 공공의료 사업 참여 공로를 인정 받아 이같이 수상했다.

그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의료인력이 부족한 천안시 감염병 전담병원에 의료진을 파견, 지역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 앞장섰다. 지난해 이탈리아 교민이 우정공무원 교육원에 입소해 있을 당시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과 천안시 국가지정임원 치료병상을 증설 운영하기도 했다.

김 병원장은 “즉각 대응이 가능한 진료시스템을 갖춰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정신문팀

토정 이지함상에 오계자 씨

대천5동 주민자치위원장 역임 등산로 정비, 벽화거리 조성 노력



선임되며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에 앞장서 지난해에는 생생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올해는 대천항 벽화거리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밑반찬 지원, 영정사진 전달, 대천애육원 위문 활동과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어르신 등에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연말 공동모금회에 171만 원을 기부하는 등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돋기 위한 활동도 펼쳤다.

오 씨는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보령시민의 일원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제공

2021-2022남자프로배구 신인드래프트

둔포초 출신 이상우·한광호 지명

이상우 현대 스카이워커스 한광호 OK금융그룹 웃맨

[아산]남자 프로배구판에 드디어 아산 지역 배구부 출신들이 입성했다.

주인공은 흥의대의 이상우(22·176.1cm) 산수와 충남대의 한광호(22·183.2cm) 선수다. 두 선수는 아산둔포초등학교 배구부 출신으로 각각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프로배구단과 안산 OK금융그룹 웃맨 프로배구단 유니폼을 입게 됐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달 2021-2022 남자프로배구 신인드래프트를 실시, 25명(수련선수 5명 포함)의 선수를 선발했다.

이상우는 4라운드 6순위로 현대캐피

탈의 지명을, 한광호는 4라운드 3순위로 OK금융그룹의 지명을 받아 프로배구에 발을 딛게 됐다.

이상우 선수는 아산 둔포초에서 배구를 시작해 연현중-송산고-흥의대에서 활약했으며, 한광호선수도 둔포초에서 배구를 시작 본오중-수성고-충

남대에서 활약해 왔다.

이상우·한광호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 충남도민체전에 아산시 대표로 활약해 배구 종합우승에 기여하기도 했다.

두 선수의 포지션은 공교롭게 같은 리베로다. 수비 전문 포지션으로 상대팀의 서브, 스파이크 등을 받아 같은 팀의 세터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리시브나 디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신민철/온양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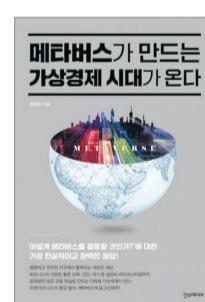


이상우(왼쪽) 선수와 한광호 선수

메타버스, 도대체 넌 누구니?



사서들의 서재



〈최형욱/한스미디어/2021〉

요즘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방송이나 뉴미디어를 통해 많이 회자되고 있다. 메타버스의 영역은 단순하게 확장된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을 넘어 실생활과 연결된 가상융합경제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가상경제 시대를 메타버스가 열어가고 있다. 메타버스의 탄생에서부터 미래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누구에게나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메타버스의 기원과 탄생, 다양한 시도들과 한계점 그리고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쉬운 언어와 문장으로 흥미롭게 전개한다. ▲메타버스의 탄생과 역사 ▲IT 글로벌 기업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구상과 시도·성공과 실패 ▲센서·디스플레이·웨어러블 등 핵심 기술의 한계 등을 설명한다. 이 밖에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제조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의 부상과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변화의 크기만큼 기회의 크기도 크다. 기하급수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큰 기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회의 시간과 공간에 푸석하라고 말한다.

메타버스라는 담론은 가상세계의 구현을 위한 기술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영화 ‘마트리스’에서 현실을 지키기 위해 주인공이 빨간 알약을 선택했듯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우리’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메타버스 탄생과 현재의 시도들 그리고 미래의 예측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접근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신재재 충남도립대학교
학술지원팀장

세계 6번째 긴 터널 '보령해저터널 마라톤대회' 열린다

11월 13일, 해저터널 반환점 도는 하프, 10km, 4.6km 코스
코로나 백신 접종자만 참가 자격

[보령]국내 최장인 보령 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기념 마라톤대회가 11월 13일 펼쳐진다.

코로나로 인해 마라톤대회가 중단된 가운데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한해서만 참가 신청을 받는 등 코스별 출발 시간도 세분화해 인원을 분산할 계획이다.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은 보령시 신흑동에서 태안

군 고남면까지 총 14.1km를 잇는 국도 77호선의 일부로 개통 시 보령에서 태안까지의 통행 시간이 9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특히 터널의 길이가 6.93km에 달해 기존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었던 인천 북항터널(5.46km)보다 1.47km가 더 길며, 세계에서는 일본 도쿄아쿠아라인(9.5km), 노르웨이 봄나피오르(7.9km), 에이커선더(7.8km), 오슬로피오르(7.2km)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길다.

마라톤대회는 하프, 10km, 4.6km 걷강러닝 3가지 코스로 진행되며, 대천 해수욕장 일대에서 출발해 보령해저터널 입구에서 반환해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보령해저터널 마라톤대회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한해서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코스별 출발 시간도 세분화해 인원을 분산할 계획이다.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10월 29일까지 보령해저터널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정신문팀



세계 5번째로 긴 보령 해저터널 충남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 해저터널이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보령 해저터널은 총 연장 6.9km,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 5번째로 길다. 사진은 보령 해저터널 조감도.

공주한옥마을 전문 호텔경영법인에 위탁

코로나에 적자 심화 이유
서비스 경영수지 개선 기대

[공주]공주시는 그동안 직영해 온 공주한옥마을을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서비스와 경영수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민간위탁업체 제안공모를 통해 지난 8월 (주)브릿지호텔앤드리조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달 최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2022

년 1월~ 2026년 12월 말로 5년이다. 위탁방식은 행정재산 관리위탁으로 숙박 사용료 세입처리, 회계검사 등 공주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공주시가 위탁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억 3400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수지 악화가 이어진 때문이다.

시는 직원 채용 시 지역민 고용과 숙박요금 인상 우려도 협약을 통해 사전에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오는 12월까지 직원고용 및 교육



공주한옥마을 전경

실시, 한옥마을 관리동 및 안내데스크 인테리어 공사, 시설물 합동점검 등 사전 준비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수탁업체인 (주)브릿지호텔앤드리조트는 인천 송도와 제주도 등 전국 8곳에서 호텔 및 리조트를 운영 중인 전문 숙박운영 업체이다. /도정신문팀

지나 손, 튜브 섬 띄워 인류 저항 표현

안면도 30년 살며 첫 전시
바다위에 1000개 튜브 띄워
세 시대 잉태한 바다 표현

[태안]해변과 들판에 오브제를 놓거나 드로잉을 하여 바로 해체하는 대지미술을 진행해 온 현대미술가 지나 손(56·본명 손현주)의 개인전이 태안문화예술센터서 열렸다.

그는 갤러리에 '두 개의 뗏목'을 띠웠다. 하나는 가로 5m, 폭 150cm의 암갈색 직사각형 설치물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위를 유영하는 1000개 오렌지색 튜브영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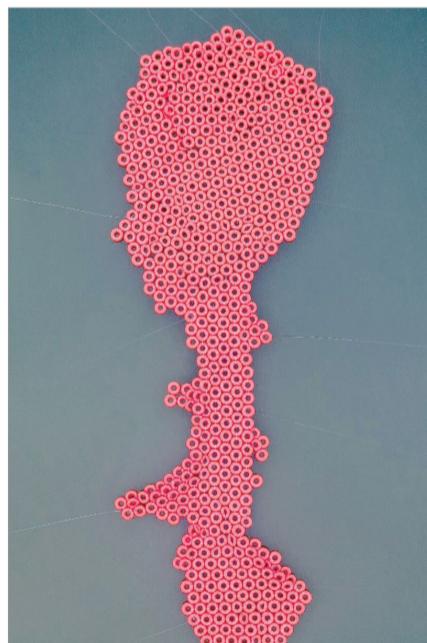
그는 안면도에서 30년을 살았다. 런

년, 파리, 독일로 떠돌며 전시를 했지만 자신을 태어나게 한 태안에서는 이번이 첫 전시다. 고향이 '편안하고 불편했다'는 그는 섬과 자신을 잇는 위로 장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 끝에서 지난 8월22-23일 안면도 두에기 해변에 띠운 1천개의 튜브 국제프로젝트 'PLAY BUOY'가 작업으로 나왔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뗏목이다.

가로 42m, 폭 15m의 이 거대한 오렌지색 인공 튜브 섬은 COVID-19에 대한 인류의 저항을 표현한 것이다. '마치 태아 같다, 그것은 세 시대를 잉태한 바다다.

신문웅/주간태안신문



안면도에 1천개의 튜브를 띠운 지나 손의 국제 프로젝트 'PLAY BUOY'. 가로 42m, 폭 15m의 오렌지 인공 튜브 섬

천리포수목원 러시아 국제학술지 게재

한국의 목련 등 소개

[태안]태안 천리포수목원 김용식 원장의 논문 2편이 러시아에서 발행하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김용식 원장이 기고한 논문은 러시아 최초의 한국 정원과 천리포수목원의 목련이다. 논문은 러시아에서 발행하는 베스뜨니크의 2021년 4월호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천리포수목원 김용식 원장과 최창호 기획경영부 부장이 함께 쓴 논문으로 한국의 목련, 천리포수목원의 목련, 목련의 종식과 보급에 관한 내용이다.

천리포수목원은 러시아 이르쿠츠크

대학 식물원과 올해 MOU를 맺고 천리포수목원에 시베리아 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용식 원장은 "러시아 최초의 한국

정원이 시베리아의 중심 도시인 이르쿠츠크에 생겨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조성된 한국 정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천리포수목원에도 식물자리적 측면에서 적합한 시베리아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송희/콘티비충남방송



결성읍성 동문지 전경

가난한 섬마을 소년, '대한민국 명장' 되다

태안 거아도 출신 '김주호'씨
중기계 정비분야 명장으로 우뚝



또 김 씨는 산업체 야간 대학에 진학해 낮에는 고된 공장 근로자로 학업을 계속하면서도 중기계정비와 시험 분야에 종사해 명장으로 우뚝 아갔다.

사진은 대한민국 명장 반열에 오른 남면 거아도 출신 김주호 명장.

주인공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호 기술부장.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김 씨는 1963년 남면 거아도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10세가 되기 전부터 가사를 돌보는 등 가난 속에서도 공장에 취업하여 야간 고등 학교를 다니는 등 한시도 공부를 놓지 않았다.

김동이/주간태안신문

병자호란과 서산의 충신 류사

■ 새로배우는 충남學

남한산성으로 가다 전사
부석면에 충절사에 모셔져



병자호란 당시 서산지역은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살신성인의 자세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자 앞장섰던 지역의 인사들이 있었는데, 류사(柳泗, 1599~1636)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괴산군수 역임 시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충청감사 정세규의 막비로 근왕병 300여 명을 모집하였다. 남한산성으로 가던 중 험천전투에서 37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전투 중에 죽음으로 임금을 섬긴다(死君事)는 혈서를 써서 자신의 등에 매고 "무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투에서 전사한 자가 충신이다."라고 외쳤다.

순국 당시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고, 부하가 투구와 토시만을 챙겨 전투 장소를 겨우 빠져나왔다. 유품만 수습한 뒤 지금의 서산시 부석면 가사2리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에 그를 모신 사당(충절사)이 있다.

진정한 군인 류사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라와 백성의 고통을

서산 충절사

해결하려는 의지만 가득했다. '편안할 때 위험을 준비하라'는 거인사위(居安思危)와 '사적인 것을 없애고 헌신하는' 멸사헌신(滅私獻身), '근심을 먼저하고 즐거움을 뒤로 하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에 매진할 뿐이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목숨을 걸었다. 류사도 동시대 다른 관료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처자식이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일 처리의 순서는 가정보다 국가가 먼저였고(先公後私), 침략군을 물리치는 일이라면 주호의 양보와 타협이 없었다.

지도자들이 대국(大局)을 보지 못하면, 그 피해는 언제나 백성에게 돌아간다. 병자호란 당시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했던 서산의 충신 류사의 순교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와 역사적 및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김경수 청운대 교수


홍주회랑 홍주읍성 닮은 흥성군청 짓는다

【흥성】흥성군은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홍주회랑-홍주읍성을 닮은 건축'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홍주회랑-홍주읍성을 닮은 건축'은 홍주천년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래의 천년을 열어갈 상징적 건축물. 군은 이달 중 당선자와 계획 및 중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2년 착공해 2024년 신청사를 준공할 방침이다.

/흥성군 제공

아산시 4인 가족 공무원 탄생 화제

두 자녀 재학 중 공무원 합격
“부모따라 열일하는 공직자”

【아산】아산시청에 가족공무원이 탄생해 화제다.

아산시청에 근무하는 도시재생과 김경일 신도시지원팀장(53세)과 배우자 기획예산과 김정자 정책기획팀장(51세)의 자녀인 둔포면 김서연(22세)과 수도사업소 김덕원(19세)이 나란히 지난 1

일 자로 신규임용 되면서 가족 4명이 아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

이번에 신규 임용된 두 자녀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함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남매 관계인 두 새내기 공무원은 2019년부터 부모의 공직생활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느끼며 부모를 따라 공직자가 되기를 결심 시험을 준비했으나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올해 재시험을 통하여 합격해 지난 1일 아산



왼쪽부터 김경일 팀장과 아들 김덕원 주무관, 딸 김서연 주무관, 아내 김정자 팀장

시로 빌령받았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다.

/아산시 제공

금산군-롯데마트 금산인삼 판매촉진 나선다

전국 107개 매장 판촉 시동

【금산】금산군은 본격적인 인삼 수확철을 맞아 롯데마트와 금산인삼 판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문정우 금산군수, 김영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전순구 만인산농협 조합장과 롯데마트 측은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군과 롯데마트는 금산인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촉진 행사 추진과 금산인삼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롯데마트 전국 107개 지점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구입 용도에 맞춘 실속형·삼계용 금산인삼 상품을 선보였다. 또한 인삼 판매 촉진을 위해 상품 중량을 10% 추가 및 할인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쿠팡 등 온·오프라인 대



롯데마트에서 금산인삼 판매촉진 협약식을 갖고 있다.

형 유통사를 통해 금산인삼 200t을 판매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금산군 제공

노동력 절감 ‘벼 수매통’이 효자네

2~3명 보조 작업자 도움 없이
운전자 혼자서 수확 가능

道-도의회, 전국최초 인사권 독립 협약

내년 1월부터 사무직원 인사권 이양
인사교류·교육훈련·복무 운영 협력키로

전국최초 집행기관과 인사권 독립 대전환
자치법규 제·개정 등 조기정착 상호 노력

충남도와 도의회는 원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의장은 지난 5일 도청 상황실에서 인사교류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와 인적 자원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양승조(뒷줄 오른쪽 다섯 번째) 도지사와 김명선 의장(뒷줄 오른쪽 여섯 번째)이 지난 5일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우리 충남 도의회가 처음으로 집행기관과의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전환을 처음 겪는 만큼 전국을 선도하는 상호 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인사권 독립에 대한 자치법규 제·개정 및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내포신도시 이전 건의



도의회가 대한체육회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김명선 의장은 김형도 의원, 조한영 충남체육회 사무처장, 노태현 충남도 체육진흥과장 등과 함께 대한체육회에 방문, 이기흥 회장을 만나 대한체육회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덩치가 큰 기관들은 기존 혁신도시로 많이 이전했지만, 충남은 지난해 혁신도시로 지정돼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대한체육회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이전기관과 직원을 위한 정책지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주민들이 공공스포츠클럽 제도 개선 방안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다.

탕정 공동주택 ‘고품질’ 초점 맞춰야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현 위원장(아산4)은 아산 향정지구 아파트 893세대 사업이 충남개발공사 공동주택 첫 사업으로, 향후 개발공사에서 공급할 7000여 세대 아파트 가치를 기능케 하는 시금식이 되는 만큼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충남개발공사는 공동주택건설 명가로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확보되고 선호도가 높은,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시공사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마련한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은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충남 지역에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이 14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인구수와 면적 대비 청소년 지원시설이 적은 곳들은 관련 시설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자들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만큼 짧아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신뢰를 쌓고 상담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실무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시론

올바른 우리말 사용, 공공언어부터 바로 잡아야



홍기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민 눈높이 맞는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 정착시켜 알 권리 보장해야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간과한 채 오염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언론매체나 공공기관도 다르지 않다.

공공언어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 많은 공공기관이 어렵고 땁玷한 용어들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정책 용어에 어려운 외국·외래어를 사용해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충남도의회 자치법규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안’을 추진한 바 있다. 어려운 법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 말로 순화함으로써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대

는 물론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였다.

의회소관 조례와 규칙용어 중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어투와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21개 조례, 5개 규칙 등 약 297건을 일괄 정비했다.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용어를 남발하면 도민들의 이해도는 떨어진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공공언어 사용은 도민의 알 권리로 보장한다.

이것이 민원을 줄이는 등 행정 효율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언론을 통해 사회 각 분야로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용어가 어려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 정책은 결코 좋은 정책이라 고 말할 수 없다.

자치법규는 도민 생활과 권리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도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충남 내륙 관광의 중심, 내포문화권 개발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유·무형 자산 발굴, 문화상품 개발
덕산도립공원·보부상촌과 연계해야

충남 문화권은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으로 구분된다.

백제문화권은 백제문화재재단, 백제왕도복원사업단이 설립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유교문화권은 2022년 초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을 앞두고 있을 만큼 활발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내포 혁신도시 지정’ 등 대형 정책들이 추진됐으나, 내포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내포문화 진흥정책은 답보상태다.

필자는 2018년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

상생지원금 도민 100%
지급 근거 마련

정부 상생지원금 지원 못 받은 충남도민
26만여 명에 추가 지급 조례안 가결

충남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지난 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열린 임시회에서는 이와 함께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발의한 ‘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9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약 26만여 명의 도민에게도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충남도의 결정에 따라 상생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민에게도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과 도민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원-포인트 회기로 운영했다. 오늘 확정된 예산이 도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33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42일간 열리며, 2021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2 본예산과 2021 정리추경예산안 등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 집행부에 여러 차례 내포문화권 개발 등을 요구했다.

이를 기반해 2019년 내포문화 진흥 포럼을 시발점으로 내포문화권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시작됐다.

최근 제329회 정례회에서는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유·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 콘텐츠 및 문화상품의 개발, 국내·외 교류협력 등이 추진돼야 한다.

동시에 예산·홍보 중심 내포해륙문화권을 설정, 덕산온천지구를 연계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덕산도립공원 및 내포보부상촌과 홍성 관광단지 등과 연계한 융합 콘텐츠 개발 전략이 절실히하다.

내포지역은 생활환경 변화의 중심뿐만 아니라 내포문화 개발과 연계해 충남 내륙지역 관광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는 내포신도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332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의회 중심’ 인사권 독립 이뤄야



이공휘 의원(천안4)은 ‘인사권 독립위원회 구성’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인사교류가 이뤄지기 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직급·종류 등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규 채용 시험을 도에 위탁하는 것은 집행부 견제 기관인 의회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집행부에 맡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의원이 중심이 되는 인사권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부와 의회 간 조례 분리 및 인사권 독립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며 “풀 뿐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 정책 기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 석면 제거 지역 격차 줄여야



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지역 격차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석면 제거율은 흥성군이 80.9%인데 반해 계룡시는 16.7%, 보령시 20.3%, 논산시 30.9%로 지역 간 격차가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석면 공해의 악극화라는 지적이 있다”며 석면 제거사업은 학생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교육청은 격차 해소 및 제거율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을 보완해 2022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세먼지 신호등’ 실효성 저조해



김명숙 의원(청양)이 충남도교육청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알림판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중복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미세먼지 신호등 시설이 없는 학교는 599개교, 알림판이 없는 학교도 281개교나 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예산이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이동식 다목적실을 배치해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고 체육수업과 방과후수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725개 학교 중 89개 학교에 체육관이 없고, 5개 학교에는 다목적시설 등 실내공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수익 전액 농업 투자해야



방한일 의원(예산1)은 “부동산 투기수익 전액을 농업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과 ‘화천대유 사건 특검도입 필요’ 등을 언급하며 “부당한 수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최근 10년간 7.8% 감소했다”며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단속,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 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 전액 투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유아 교육시설 투명마스크 지원해야



정광섭 의원(태안2)은 영유아 언어발달을 위한 투명마스크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아이들은 표정, 눈짓 등 많은 비언어적 요소들을 통해 소통을 배워야 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 되면서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며 “오직 음성에 의존한 상호작용은 아이들의 발달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아이들이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잘 볼 수 있도록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며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보령요트경기장 시설보완 시급하다



충남 유일한 요트경기장인 보령요트경기장의 노후된 시설물 보완공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요트경기장 시설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준공된 지 20여 년이 지난 요트경기장 시설은 노후돼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대회도 원활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사무실은 협소하고 운영본부실조차 없다. 임시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실정이며,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시설도 비좁아 선수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회 후 육상계류장으로 이동 보관해야 함에도 육상계류장이 좁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매립·확장 방안을 제안했다.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감독 철저



이선영 의원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의 비도덕적 기관 운영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불공정 운영 문제와 충남도의 관리감독 부실, 솜방망이 시정조치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3년마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조치를 함으로써 비리를 반복하는 법인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리를 저지르면 법인 지정 취소 등 기관을 퇴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며 도가 나서서 심리상담 및 복지계획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가을걷이 농촌인력 수급 대책 주문



조승만 의원(홍성1)은 농촌 인력수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농촌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련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농작업지원단 사업비를 증액해 맞춤 지원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적체적소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일손돕기 한 번 더하기 운동도 확대해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일손이 요구되는 곳에 제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농촌일손 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년 여성 일자리’ 전담 인력 배치해야



김연 의원(천안7)은 중장년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담 인력배치와 경력인정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0+세대(중장년 층)는 자녀 양육과 부모부양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세대다. 복지정책의 대상자인 동시에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의 세대”라고 규정하며 일자리 정책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충남 중장년 여성은 남성 대비 경제활동 참여가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담부서와 인력배치 ▲경력과 교육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인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산업구조 혁신해야



도의회는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기서 의원(부여1)을 위원장으로, 황영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탄소중립특위는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방향 모색 ▲정의로운 탄소중립 정책 발굴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기서 위원장은 “탄소 중심 일자리 축소에 따른 인구·지방세 수입 감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이 겪게 될 피해와 충격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최소화해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살 예방’ 국가적 해결방안 모색



높은 자살률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도의회 정책위원회는 ‘충남 이종국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살률 상승이 우려된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충남은 우리나라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권 국립경찰병원 설립 촉구



도의회는 중부권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권 의원(아산1)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난 의료 거점 병원의 확대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의 균형있는 배치가 절실하다”며 “아산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의 설립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TX와 전철, 경부선과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연결돼 있어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뛰어나며,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 경찰타운에 있어 입지조건도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는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집중 제보기간 : 2021.9.1. ~ 10. 31.

제보내용

충청도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비 보조금의 부당수령, 주요 낭비사례 및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보방법

▶ 인터넷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council.chungnam.go.kr) → 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 문의전화 / FAX

041-635-5083 / 041-635-5283

▶ 우편 (방문)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당당관실
(우 32416)

지역경제 살리는

충청남도 공식지정 배달앱

소문난샵

전국 최저 수수료 충남형 '소문난샵' 가입하면 혜택이 와르르~

전국 배달앱을 통틀어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출시한 충남형 공공배달앱 '소문난샵'이 계룡시를 필두로 도내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15개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민간 업체와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소문난샵'의 배달 수수료는 1.7%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2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입니다. 서산시, 논산시에서 본격 출시된 데 이어 10월 중에 홍성, 보령, 당진시가 12월 중에 아산시가 '소문난샵'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시군은 내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입니다.



'소문난샵'을 이용해서 배달하면 첫 주문 시 5000원이 할인되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또 도민들은 시·군별 지역화폐로 구매하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물 배달 플랫폼, 택시호출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어서 파급력도 커질 전망입니다.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소비자가 함께 '소문난샵'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소문난샵'은 도민 화합과 상생입니다.

/도정신문팀

민간 플랫폼 수수료 비교

구 분	배달앱 B사	배달앱 C사	배달앱 Y사	충남형 배달앱
종 개 수수료	-	·가입 3개월간 1,000원 ·4개월 이후 15%	12.5%	0.9%
결 제 수수료	3%	3%	3%	0.8%
부 가 수수료	·울트리콜: 건당 8만원 ·오픈리스트 건당 6.8% ·월회비 250,000원	-	-	-
수수료 합 계	10~20% (예상)	18%	15.5%	1.7%

타지역 공공배달앱 수수료 비교

지 역	종계 수수료(%)	카드 수수료(%)	지역 수수료(%)
광주	2.2	3.3	-
충북	1.5	3.3	-
경북	-	-	-
대구	2	2.2	-
대전	20이하	0.8~1.6	0.5~1.3
세종	2	3.3	-
경기	1	1.2~2.5	-
강원	-	-	2%이하
충남	0.9	0.8	-

충남 시군 지역화폐와 연동



시군별 공공배달앱 오픈 시기

계룡시	2021. 07월 05일	예산군	2022. 상반기 오픈(1~2월)
서산시	2021. 08월 30일	태안군	2022. 상반기 오픈(1~2월)
논산시	2021. 09월 30일	서천군	2022. 상반기 오픈(1~2월)
홍성군	2021. 10월 중	금산군	2022. 상반기 오픈(1~2월)
보령시	2021. 10월 중	청양군	2022. 상반기 오픈(1~2월)
당진시	2021. 10월 중	부여군	2022. 상반기 오픈(1~2월)
아산시	2021. 12월 중	천안시	10월 중 재 논의

(※ 공주시 참여의사 미정 : 자체개발 추진중)

축산물 배달 플랫폼 사업 연계

